

천태종 비구니스님 위상 높인다

총무원등 종무기관에 창종이래 첫배치 변화시대에 발맞춰 정책 유연하게 운영



다른 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위상이 낮았던 천태종이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택)은 최근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의 각 부서에 비구니 스님들을 배치했다. 특정한 직급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을 종무에 참여시킨 일은 천태종 창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천태종은 2백여명에 달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사중 살림과 영농으로 제한해 왔다. 종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이 3명에 불과하고, 각 사찰 주지라도 임명되지 못하도록 관례화 하고 있다.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의 중앙종무기관 배치는 인재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천태종은 이에 앞서 90년대 중반부터 어린이회와 중·고등학교생회의 법회를 지도하는 법사로 3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배치했다. 청소년들이 비구니 스님보다 비구니 스님들에게 친밀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두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앞으로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종

단내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종단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해 나가는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구니 스님의 역할 증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을 종무에 참여시킨 이번 조치가 향후 종단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찬반 양론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천태종의 한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에게 불교와 종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더욱 많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진각종 '홈피'에 커뮤니티 코너

심인당 모임·교리연구 등 10여개 모임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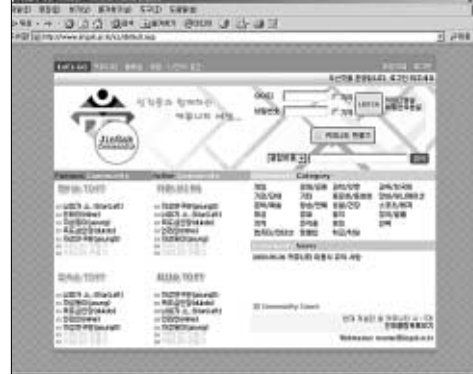


진각종 홈페이지가 불자들의 건전한 의사소통 공간으로 거듭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각종은 5월 26일 홈페이지(www.jingak.or.kr) 내에 커뮤니티 코너(사진들) 신설해 심인당 모임, 교리 연구, 취미활동, 게임 등 건전한 교류를 이끌어내고 있다. 커뮤니티 코너가 개통된 지 1주일만에 10여개 모임이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커뮤니티 코너에 등록한 모임에는 50MB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되며,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이메일 계정(@jingak.or.kr)과 10MB의 사이버공간, 커뮤니티 활동 관련 등이 부여된다. 또 커뮤니티를 홍보할 수 있는 코너와 접속 순위, 회원가입 순위, 개설 시기를 알 수 있는 서비스와 자유로운 채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커뮤니티는 게임, 기관·단체, 동문회·동창회, 스포츠·레저,



여성, 취미, 교육, 경제·금융, 진각종, 팬클럽, 컴퓨터·인터넷 등 23개 분야로 나눠 모임의 성격에 따라 카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진각종도는 물론 일반 불자와 청소년,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이버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종 전산실 관계자는 "네티즌과 청소년들을 겨냥한 종단의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됐다"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보급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ww.jingak.or.kr/cc/ 박봉영 기자



원용종 창종 23돌... 평화통일 수록재

원용종(총무원장 법륜)은 창종 23주년을 맞아 5월 29일 여주 신복사 남한강변에서 남북 평화통일 기원 및 영가 천도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전통 영산재 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수륙대재에는 종정 일공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법륜스님은 "수륙재를 계기로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을 다하는 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진각종 청년회 단석산 등반법회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류호선)는 5월 25일 경주 단석산에서 등반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종단 불사가 원만히 회향돼 새로운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 진인행자들의 원력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 곳이 불교와 진각종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육성할 수련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서원했다.



천태종은 5월27일 구인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29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천태종 중앙종인 상월 원각 대조사의 열반 29주기를 추모하는 열반대제가 5월 27일 총본산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열렸다.

이날 열반대제는 조사 법어 봉독, 헌화 및 헌향, 조사 영반, 추모사, 추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29주기 열반대재

다사 등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택스님은 "일

미평등(一味平等)과 중도의 정신으로 모든 대립과 갈등, 편견과 아집을 지양하고 조화와 유희, 상호 존중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우리 모두 대조사님의 열원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여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발원서원(發願誓願)하자"고 추모했다.

상월 원각 대조사는 천태종의 초대 종정을 지내면서 한국 천태종을 중흥시키고, 새시대 불교중흥의 열원으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삼대지표와 주경야선(晝耕夜禪)의 풍조를 내세웠다. 또한 총본산 구인사 장건을 비롯해 오늘날 천태종의 기반을 다지는 업적으로 모든 천태종도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다. 단양=박봉영 기자

가사·장삼 검인증제도 적용

태고종, 27기 합동등도 수계자부터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가사와 장삼의 검·인증 제도를 도입, 제27기 합동등도 수계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사·장삼 검·인증 제도를 통해 승려의 품위 향상과 위계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가사장삼 검인인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사장삼 검인인증위는 법계와 승법에 따른 가사의 조수, 색상, 일일량 문양 등을 정하는 한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펴서 나감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국내·외 장학금 선발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국내·외 정규대학 석사과정 2학기 이상에 재학중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선발한다. 특수대학원 아간대학원 재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행이력서, 대학원 재학·성적 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등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7월말까지 접수 받는다. 해외장학금 신청자는 '해외 유학 지역의 불교현황'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과제, 국내장학금 신청자는 '21세기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 종단의 승가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가운데 각각 주제를 선정해, A4용지 5매이상의 보고서 1편을 제출해야 한다.

28일 종단 산하 전국 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하반기 49일 불공에 들어갔다. 이번 불공은 49일 동안 진행되며, 7월 15일 회향한다. 입제식에서 법공 통리원장은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불공기간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할 수 있도록 응징정진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전쟁 희생자 천도재

미륵종 광주 미륵사는 6일 오후 1시 광주시 동구 월남동 소재 미륵사 경내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천도대재를 봉행한다. 호국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번 천도재는 전통 영산재 의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49일 불공 입제

총지종 (통리원장 법공)은 5월

게시판

행사 ▲조계종이 창작 찬불가에 대한 저변 확대와 유능한 불교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4회 창작 찬불가'를 공모한다. 신청서 교부기간은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며, 접수는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1인이 3곡까지 출품 가능하며 피아노반주를 원칙으로 한다. 발표는 10월 15일. (02)739-1830

▲문화답사 모임 '터사랑'은 6일 강원도 인제로 '점봉산 곱배령 들꽃기행'을 떠난다. 출발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참가비는 어른

3만 8천 원, 어린이 3만 3천 원. (02)725-1284

모집 ▲부산 불문대중합사회복지관은 정신지체아동 통합지원프로그램 '맑은소리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정신지체 및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개별치료와 그룹언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수첩. (051)264-9033

▲서울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11일 오전 11시 관내 2층 탁구실에

서 '금천 어르신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마감은 10일까지. (02)804-4058

▲서울 연꽃마을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료 경로식당에서 배식보조와 설거지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02)365-3677-8

구인 ▲서울광진자활후견기관이 상근 실무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운전면허1종 소지자우대, 지역운동 및 빈민운동에 관심있는 사람, 준비서류는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제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각 1통, 접수는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마감은 5일까지. (02)453-8373

▲서울 동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언어치료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 각 1통, 마감은 채용시까지. cbwelfare@yahoo.co.kr, (02)3494-

4755-6

이전 ▲대한민국불교사신연합회의 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3번지 현대1차 APT 상가2층 201호로 변경됐다. (02)404-9199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원이기에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단체강의한곳: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종합화학(주), 한국중공업의 다수

道家, 佛家에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 치료법 공개!
누구나 5박 6일이면 氣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최후교정 운동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골반,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천일기공 <정기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만성 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요실금,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안평다리, 허리근육통, 만성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료하는 수련법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스마트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

-척추교정운동법, 오장육부 氣, 치유법, 통증해소법, 비만감량법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선착순 20명만) T. 02-3436-3206

*책신청방법: 아래계좌로 우송료 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책(390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체국: 013094-02-213631 주문부]

도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 1544-3246

홍보관 운영하실분,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료체험실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국내 자생 오가피 '간기능보호능' 탁월 입증

수신물산(수신오가피)에 기술 이전돼....

국내자생오가피가 탁월한 간기능보호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자생오가피의 품질별 성분 및 효능 비교에 의한 식품의약품개발과제를 수행중인 생명공학연구원 이정준 박사팀은 급성간염을 모델로 한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자생오가피가 간기능의 지표효소인 GOT, GPT의 혈중농도를 정상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활성이 가시오가피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했으며 급성간염모델에서 오가피를 투여하지 않은 쥐는 24시간 이내에 90%이상 사망한 반면 오가피를 투여 받은 쥐는 90% 생존율을 보였으며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간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간세포의 과사나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발현이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우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내자생오가피가 간염치료제뿐만 아니라 간보호제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박사팀은 국내특허 3건 국제특허 1건을 각각 출원했으며 이 연구결과는 최근 연구참여기업인 수신물산(수신오가피)에 기술 이전돼 간보호용 식품 및 의약품으로의 상품화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inews24 보도내용)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병체 산후바람 냉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간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골仁製藥(株)**

기술이전기념 고객사은행사!

국회수신오가피에 대한 연구결과를 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토종오가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이번 연구를 통해 고객여러분께 더 좋은 품질, 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종오가피를 사랑하시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을 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은행사행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수신오가피 제1회 상광수사

15만원 상당의 생짜맛배가나 어린이용 수신천사토종오가피를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수신토종오가피 3개월분을 신청하시면 생짜맛과 토종오가피로 만든 성공수 생짜맛배가나 어린이용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중 하나를 선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